

■ 정책 동향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마련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5년 10월 19일 「사전규제 → 사후감독으로 보험규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경쟁과 혁신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이 상품개발·자산운용 등에 대한 사전적 규제로 판매채널에 의존한 양적 경쟁에만 치중하면서 질적 성장은 근본적 한계에 직면하였고, 불완전판매·보험사기 등에 따른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로드맵의 주요 테마는 ① 상품개발의 자율성 제고(현행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등), ② 상품가격의 다양성 확대(위험요율 규제 전면 재정비 등), ③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운용 관련 한도규제 폐지 등), ④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 대응(온라인 등 보험가입 절차 전면 재정비 등), 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부실상품 판매 시 사후적 책임 대폭 강화 등), ⑥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이며, 이는 다시 총 30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기 방안은 금년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운로드: 「사전규제 → 사후감독으로 보험규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경쟁과 혁신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